

나는 웃고 있는데
 당신을 잊은 듯 웃고 있는데
 당신은 울고 있군요
 몰랐습니다
 나 때문에 울고 있는 당신을
 붉은 십자가엔 온통 눈물뿐이라는 것을
 이선명 '붉은 십자가' 중에서



십자가는 예배당 꼭대기 높은 데처럼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의 멀고 먼 그 시대에 머물러 박제되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당신을 위해서, 늘 당신 곁에서 존재해온 십자가.
 그동안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언젠가는 당신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몸이 아니라, 마음을 장식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1 새번역)

 전주동부교회

동녘

동녘은 전주동부교회가 이웃들을 향해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에스겔 43:2)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특징

김 종 철 전주동부교회 담임목사

구두쇠 주인이 종에게 돈은 주지 않고 빈 술병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술을 사 오너라.”

그러자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돈도 안 주시면서 어떻게 술을 사오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돈 주고 술을 사오는 것이야 누구는 못하니? 돈 없이 술을 사오는 것이 비범한 것이지.”

종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빈 술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 후 종은 빈 술병을 가지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빈 술병으로 어떻게 술을 마시니?”

그때 종이 말했습니다. “술을 가지고 술 마시는 것이야 누구는 못 마시겠습니까? 빈 술병으로 술을 마셔야 비범한 것이겠지요.”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주는 대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친구에게도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며, 동료와 가까이 지내는 자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심으면, ‘신뢰’로 돌아옵니다. 힘들수록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믿어주고 이끌어 주며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주변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늘의 법칙을 그대로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와 가족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가족은 내가 젊을 때 얼마나 사랑과 믿음을 심었느냐에 따라 노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마가가 전해 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3.25(월)~3.29(금) 새벽 5시, 본당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막 15:39)

예수 고난과 부활

그가 절망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부/활/절/감/사/예/배

3.31 주일 낮예배 (오전 9시, 11시, 본당)

부/활/절/칸/타/타

3.31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3시, 본당)

전주동부교회가 ‘예수, 고난과 부활’이란 주제로 2024년 부활절을 맞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와 부활절 감사예배 그리고 부활절칸타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권능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일시 | 3월 25일(월)~29일(금) 새벽 5시

마가가 전해 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막 15:39)

■ 부활절 감사예배

| 일시 | 3월 31일(일) 낮 9시와 11시

■ 부활절 칸타타

| 일시 | 3월 31일(일) 오후 3시



년에 우리에게 열매를 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 19:6)

부지런히 서로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시간, 마음과 사랑, 믿음과 용기를 나누어 주면,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

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3)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14)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함께 걸어갈 친구 하나쯤 곁에 두면 어떨까요? 그중에서도 제일 좋은 친구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주신 예수님 친구입니다.

檢 減

법률사무소 검재

대표 변호사 김 민 규

Phone 010-2779-5664

Tel 063-213-7653

E-mail kumjae7653@naver.com

Fax 063-214-7653

Address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9 (명승법조타운) 304호

* 김민규 변호사는 전주동부교회 강인구 집사와 이정숙 권사의 사위입니다.

우리 교회가 즐거운 놀이터가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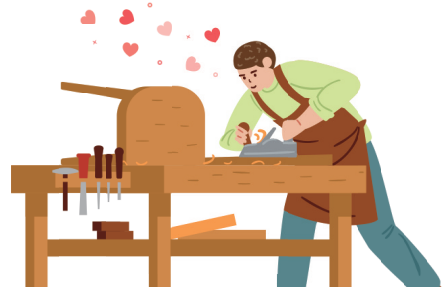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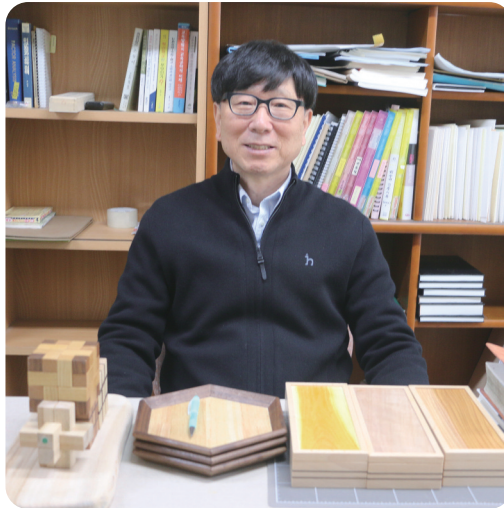
만난 이 박승배 집사

3월의 캠퍼스에 꽃과 새싹들이 파릇하게 돋아났다. 새 학기를 맞은 청춘들이 돌아오니 겨우내 한산하던 이곳의 공기부터 달라졌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 모여서 재잘재잘 이야기 나누는 풍경이 싱그럽다. 다시 봄이 찾아온 이곳 전주교육대 교정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난다.

박승배 집사는 이 학교 교수로 30년을 근무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정책개발자로도 활동했고, 학내 기획처장 도서관장 전산소장 교수협의회장 등을 지냈다. 재직하는 동안 줄곧 강의 잘 하는 선생님,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놓는 전문가라는 평판도 받았다. 그리고 6개월 후인 올해 8월에 정년 퇴임한다. 마지막 학기를 보내는 느낌이 어떨까? “솔직히 섭섭한 마음보다는 시원한 마음이 더 커요. 특히 매년 두 편씩 의무적으로 써내야 했던 연구논문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기자에게 학교 이곳저곳을 안내하며 살짝살짝 둘러보는 박 집사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아쉬움이 묻어있다. 그래도 다행히 그의 헛헛할 마음을 달래주는 공간 하나가 존재한다. 바로 교수 연구실 맞은편에 설치된 목공실이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박 집사에게 우연한 기회에 동료 교수들과 함께 시작한 목공작업은 적성에 참 잘 맞았다. 몸과 머리를 함께 쓰며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생경한 자유로움과 성취감이 느껴졌다. 그렇게 습득한 실력으로 요즘엔 주변에 이런저런 선물까지 할 정도의 경지에 올랐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목공교실을 운영해보고 싶어요. 성도들이든, 이웃



주민들이든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 함께 이런저런 물건들을 만들면서 목공의 매력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사람들에게 즐거운 놀이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종종 상상하곤 합니다.”

박승배 집사는 초등학생 시절 전주동부교회에 처음 나왔다. 부안에서 전주로 이사한 후, 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다니기 시작한 교회를 미국 유학시절만 제외하면 한 번도 떠

나지 않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아내 최미나 집사와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는데, 미국 MIT에서 공부하는 큰딸은 올 초에 혼례를 치렀고 전북대 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아들은 현재 군 복무 중이다. 자녀들과는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지만, 요즘 자녀와 비슷한 또래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더 분주해졌다. 올해 처음으로 교회 대학청년부 부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평소 모토대로 대학청년부 또한 즐거운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것이 박 집사의 소망이다. 그런 바람으로 처음 만난 학생들에게 나무퍼즐, 교사들에게는 성구까지 새겨 넣은 탁자 하나씩을 선물하며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다. 무뚝뚝해 보이던 첫인상과 다른 면모에 놀라기는 인터뷰 차 방문한 <동녘>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기자들에게도 손수 제작한 나무쟁반 하나씩이 돌아갔다.

어쩌면 은퇴 후에도 박 집사의 주변에서는 이처럼 기분 좋고 역동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지 모른다.

어린 세대들은 오감으로 키워야 한다는 교육철학과 놀이가 사람들을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신념이 교회 안에서든 마음껏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현미 기자

다음세대를 향한 열정

추위 녹여낸 겨울수련회 현장



전주동부교회 다음세대를 키워내는 겨울사역이 유초등부 중등부 대학청년부 등 각 부서별로 진행됐다.

유초등부는 2월 23일~24일까지 '구약성경 맥잡기'라는 주제로 겨울성경학교를 열었다. 어린이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시작하는 성경목록가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교사들과 함께 게임과 찬양으로 학습하며 1박 2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중등부도 2월 24일~25일까지 겨울수련회를 개최했다. 주제설교와 함께 신입생환영회, 공동체훈련, 경배찬양

등으로 일정이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함께 일하며, 서로 결속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청년대학부는 앞서 2월 1일~3일까지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에서 열린 주바라기선교비전캠프에 참여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주제 아래,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해 영적인 도전을 받고 신앙을 결단하는 계기로 삼았다. 각 부서 담당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헌신 속에 심신을 충전한 다음세대들이 새 학기에도 하나님 자녀로 튼실하게 자라나기를 기원한다. | 이승은 기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은혜 가득한 신년부흥성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주제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주동부교회 신년부흥성회가 열렸다. 총신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쳐온 김지찬 교수가 강사로 나서, 베드로전서 2장 등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설파했다.

특히 김지찬 교수는 "진정한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성도들은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삶,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도하며 말씀 앞에 화답했다. | 윤미영 기자

새 식구가 오셨어요

나종국 목사와 정유식 목사 부임

전주동부교회 공동체를 한마음으로 섬길 두 교역자가 2월에 나란히 부임했다.

나종국 목사(사진 왼쪽)는 영유아부와 청년대학부를 맡아 다음세대 양육에 전념한다. 네팔 선교사로 파송을 준비 중인 정유식 목사(사진 오른쪽)는 '위드 유(with you) 부모모임'을 담당한다. | 정재영 기자





아이들에게 신앙의 눈을 열어줍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많은 교사와 부모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성경이야기와 교리를 전달하고, 예배 기도 말씀 찬양 그리고 여기에 사랑과 관용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 거룩하시고 영광스로우신 하나님, -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 삼위일체(성부 성자 성령)로 존재하시는 한분 하나님, - 하나님나라를 위한 계획 등 교리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들을 구체적인 이야기와 활동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간단하고 명확한 가르침에 초점을 두면 좋습니다. 기본적인 성경이야기와 신앙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 성경이야기의 핵심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 그림 만들기 연극 등으로 표현해보기, - 찬양 율동을 통해 공동체의 소속감 갖기 - 말씀에 대하여 함께 기도 나누기, - 기도에 대한 경험 갖기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신앙 체험과 믿음이 자라나도록 합니다. 초등 고학년은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와 진취적 활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깊이있는 내용의 성경이야기, - 토론, 역할놀이 등으로 자기의견 표현해보기, - 신앙적 고민이나 궁금증을 부모님과 나누기, - 사회봉사나 나눔활동 체험하기(도청 시청 누리집 활용), - 예수님의 삶과 가르치심을 중심으로 신앙의 본질 이해하기 등으로 신앙에 대한 깊이있는 개념을 심어주고,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초등학생 시기는 이미지두뇌인 우뇌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총동원하고, 언어두뇌인 좌뇌를 활용하여 말과 글이라는 도구로 표현하며 성장하는 때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며, 신앙적 고민을 부모 교사와 나누는 등 위에 열거한 모든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충분히 펼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은 실제로 이런 부분을 얼마나 표현해내고 있을까요?

세상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는 것이 부모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복된 미래를 간절히 꿈꾸며 기도합니다.

| 최조경 기자



전주동부교회 유초등부를 소개합니다



■ 2024 표어 | **바르게 알아요! 굳게 믿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 주 제 말 씀 | 다른 복음은 없으나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갈라디아서1:7)

전주동부교회 유초등부는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서입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3층 유초등부실에서, 이광복 목사 이하 총 18분의 선생님들과 귀한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1) 교리교육을 통해 참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며 2) 찬양-말씀-기도의 생활화와 적극적인 공예배 참석을 통해 참 진리를 향한 믿음을 기르며 3) 가정,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참 진리를 살아내는 훈련을 돕는다는 교육목표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 교역자 | 이광복 목사 ■ 부장 | 김중후 안수집사
■ 총 무 | 박선규 안수집사

사도의 여정을 따라가는 다큐 바울로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느 청년 앞에 자신들의 겹옷을 벗어 내려놓는다. 그리고 바로 돌을 집어 다른 누군가에게 집어 던졌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그는 결국 죽음에 이른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가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다. 사울은 그 끔찍한 현장에서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바로 그 청년이다. 이렇게 성경에 처음 등장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그는 로마 시민이자 부유한 아버지와, 뛰어난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최고의 랍비가 될 엘리트로 자라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사울은 각지로 흩어진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빛 가운데 강렬한 음성과 함께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다. 사울은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 믿었던 자신의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핍박이었음을 깨닫는다. 결국 그는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초기 기독교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 중 한 사람으로서, 그분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다.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처럼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크리스천 OTT 채널인 ‘풍당’이 개국 3주년을 맞아, 총 10부작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를 부활절 특집으로 상영하는 중이다. 신학박사인 최중상 선교사와 인기 배우 차인표 집사가 출연하여, 바울의 일생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며 6개국 로케이션으로 촬영한 작품이다. 화면에 담긴 다채로운 풍경들과 함께, 바울의 가르침을 묵상할 수 있도록 작품이 구성되어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바울로부터>를 시청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를 헤아려보며, 우리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찾아보는 계기를 마련해보면 어떨까. 이왕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며 은혜와 교훈을 얻기를 권장한다.

<바울로부터>를 시청하려면 스마트폰으로 ‘풍당’을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www.fondant.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영상을 다운받으면 된다. 회원가입과 시청은 무료이다. 2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1회분씩의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 김형열 기자

<동녘>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 김종철

편집인 : 안효건

제작팀 : 정재영(팀장)

김형열 윤미영 이승은 이현미 정소연 최조경

발행처 : 전주동부교회 전도위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88

전화 (063) 275-7760 홈페이지 www.cjdb.or.kr

<동녘> 제작을 후원하신 분들

김남기 김미영 김숙희 김옥순 김진숙 김효순 박선규 박영삼
소화수 안한성 안효건 은경옥 이동주 이정숙 이정희 이준례
이현미 이홍재 임선영 임순 정소연 정숙자 정재영 최근수
최금미 최동욱 최순미 최조경 하기찬 (가나다순·2024년 3월 16일 현재)

전도편지 <동녘> 제작을 후원하실 분들은 1구좌당 5000원씩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29-3293494 이현미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을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앞장서 이끌어주고, 평생 동행하며 힘이 되어줄 존재를
모든 인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족, 친구,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진리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사랑, 그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모이는 생명공동체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고,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주동부교회는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전주 노회 소속으로, 1933년 10월 15일에 설립되어 9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공동체로서 정체성과, '학생교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다음세대 사역에 전념하여 큰 열매를 거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새벽예배	매 일 05:00	본당
주일 1부	일요일 09:00	본당
주일 2부	일요일 11:00	본당
찬양예배	일요일 15:0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19: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20:30	본당
영유아부	일요일 11:00	교육관 1층
유치부	일요일 11:00	본당 지하 1층
유초등부	일요일 11:00	교육관 2층
중고등부	일요일 09:00	교육관 3층
대학청년부	일요일 13:00	본당 4층
부부모임	일요일 13:00	지정 장소

오시는 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88 063) 275-7760

<동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cjdb.or.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roups/dongnyeok)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db_dongnyeok)

본인 정기구독 및 전도대상자를 위한 우편발송을 신청하시거나, 구독소감 이벤트참여 후원 등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와 이메일을 이용해주세요.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dongnyeok>) ▶ **전용 이메일** (dong_nyeok@naver.com)